

KP케미칼, 고용안정 요구 “파업”

10월16일부터 부분파업 돌입 ... 고용불안 해소가 핵심쟁점 부상

2004년 초부터 임금협상에서 난항을 겪던 KP케미칼 노조(위원장 김인규)가 파업을 결정하고 10월16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KP케미칼 노조는 10월14일 오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가 조합원 344명 가운데 98.8%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파업은 호남석유화학이 8월 채권단과 본계약을 체결하고 인수과정 중 발생한 사건이어서 현 경영진은 물론 호남석유화학의 입장도 난처한 상황이다.

기존 채권단 경영체제에서 선임된 현 경영진은 협상력이 미미한 것이 당연하고, 호남석유화학도 인수가 마무리지 않아 노사협상에 개입할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노조는 기본급 14% 인상과 회사 매각 후 고용보장 등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임금 5% 인상안을 제시하는 등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실제로 임금보다는 회사 매각에 따른 고용불안 때문에 쟁의행위에 찬성한 조합원들이 많았다”며 “사측의 변형된 협상안이 나오면 협상에 적극 응하겠다”고 말했다.

회사는 “현재는 말 그대로 부분파업에 돌입한 상태일 뿐이다. 조업중단과 같은 극한 상황은 없을 것이다. 게다가 공장 보수기간에 맞물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파업으로 인한 생산이나 공급상의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또 “파업의 핵심쟁점인 고용승계에 있어서도 이미 매각협상 전부터 구조조정을 꾸준히 진행해 왔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해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쪽에 무게를 두었다.

한편, KP케미칼의 주력제품인 P-X(Para-Xylene)와 TPA(Terephthalic Acid) 등은 대부분 자가소비용이거나 수출이기 때문에 국내 화섬업계 등에 미칠 파장은 미미할 전망이다. <심주영 기자>

<화학저널 2004/10/18>